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

그림 : 윤계향 프란치스카(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1,14ㄴ~2,2ㄴ.8~10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2,7ㄴ~9.13

화답송 시편 131(130),1,2,3

복음환호송 마태 23,9,10 참조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알렐루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1.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복음 마태오 23,1~12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떴던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영성체송 시편 16(15),11 참조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스마트폰에서 **교구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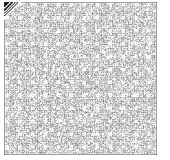
QR코드를 사용하면 가톨릭부산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브 부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http://www.catholicbusan.or.kr>

이 주간의 축일

♣ 5일 : 갈라시온, 도미니토르, 돔니노, 레토, 마노, 베르틸라, 실바노, 에우세비오, 에피스테메, 엘리사벳, 즈카르야, 케아, 테오시모, 펠릭스, 피비시오, 필로테오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생활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를 촉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남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자만심과 위선적인 태도로 쉽게 불성실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꾸지람이 제1독서에 있습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사제들이 직분을 다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민족의 침입이라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제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며 경고합니다.

복음에서도 사제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똑같은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이 있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교만의 유혹에 빠져 실천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실천이 다름을 많이 봅니다. 정치꾼들, 부패한 공무원들, 잇속만 채우는 기업가들, 말뿐인 성직자, 수도자 등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자신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신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서서는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과 형제를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이웃을 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머니로 본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어머니는 온화하면서도 엄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미소와 눈물로써 자녀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 살아 있는 말씀으로써 사랑의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 건
도미니코 신부
김범우순교자성지사목



일기장을 샀다

지금 여기

잘못이나 실수가 컸던 날에는
일기를 쓰는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가곤 했지.
꼭꼭 눌러쓴 글씨 자국이 공책 뒷장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일기를 쓰면서도
그날의 잘못과 실수를 곱씹곤 했었어.
후회와 반성이 길었다고나 할까.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에 일기를 쓰니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페이지만 넘기면 흔적도 없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1.6(월)~7(화)
한건 신부(김범우순교자성지사목)
11.8(수)~11(토)
노지성 신부(성가정성당 부주임)

문자참여 #2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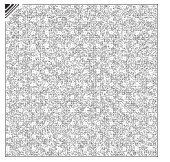
❤️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11.7(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온천성당 선종봉사자회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11.8(수) **건강하게 삼시미 - 안과**
출연 : 동의병원 안과 함동식 과장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의 변화



신 호 철 비 오 신부

로마 미사 경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지금까지 1970년, 1975년, 2002년, 2008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반포되었다. 1970년의 '표준판'이 1975년에 우리말로 출판되었고, 이제 2017년 12월 3일부터는 2008년의 '제3표준판'을 번역한 우리말 미사 경본이 사용될 것이니 우리말 미사 경본은 1975년 이후로 42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세 개의 판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 2002년의 '제3표준판'이다. 그러므로 새로 출판되는 우리말 미사 경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번역문의 변화를 보기 이전에 먼저 제3표준판 자체의 변화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에 있던 네 개의 감사기도 외에 **화해 감사기도** 두 개와 **기원 감사기도** 네 개가 추가되어 감사기도가 모

두 10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화해 감사기도는 화해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려는 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원 감사기도는 여러 기원 미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양일간에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한 이들이 하는 영성체와 노자 성체 외의 모든 성사를 금지해왔는데, 치유성사인 고백성사와 병자성사만큼은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예규가 변경되었다.

●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를 첫째 자리에 놓았던 것에 반해, 제3표준판은 전례의 교회론적 차원을 중시하여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성찬례의 전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2017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용되는 새로운 『로마 미사 경본』 소개가 이번 주부터 4주간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 본연의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위상을 복원하여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사도신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 또한 복원하여 악보 없는 본문 앞에 악보 있는 본문을 제시함으로써 노래로 바치는 미사가 더욱 합당하고 장엄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전례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는 거룩한 침묵의 바탕 위에서 거행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 시작 예식의 인사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모든 양식에서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응답하도록 통일하였다. 그리고 "영성체 노래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에 시작한다."라고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 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신부가 네 번 바뀌면 사제관 침대가 원위치한다는 슬픈 우스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신부가 부임하면 가끔 자기 취향대로 사제관뿐만 아니라 다른 멀쩡한 곳도 새로 단장하고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본당의 주인이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로메로 대주교님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그 본당의 역사와 함께해온 교우들이 주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본당에는 그 본당 교우의 역사와 전통과 향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효된 고유한 색채와 신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색채는 그것이 유해하거나 불량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발전적으로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제가 바뀔 때마다 사제 자신의 고유한 색깔의 사목이나 신심을 덧씌우려한다면 그것은 합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소개는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 본당에 맞으면 장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칫 사제가 주도적으로 무리하게 강요하다가 그 본당의 전통과 마찰을 빚을 수 있고, 나중에 전혀 다른 취향의 후임이 와서 또 다른 식의 신심을 강요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카오스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항상 성직자와 교우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사목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을 포함한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교구 사제가 한 교구나 본당을 이끌 때는 공동체에 귀를 기울이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며 조화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제가 '여기서는 내가 명령합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게 되면 그는 결국 성직우월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가에타 『교황 프란치스코 - 새시대의 응답자』)

■ 전동기 신부(우동성당 주임) jundki@daum.net



전자·통신 제어 분야 특성화고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기본이 바로 된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참되고 건강한 일꾼이 되자’ 라는 교훈 아래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력은 물론 인성과 예절을 갖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대양”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대양”

- 교육감지정 ‘전자·통신제어’ 분야 특성화고
- 1946년 개교 이래 71년간 IT분야 전자통신 단일 계열로 2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 강소기업, 방송국, 군부사관, 군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양을 빛내고 있습니다.

교장 최재석(사도요한), 교목 서진영(미카엘) 신부

천주교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입학안내 : 051)640-0541 | 팩스 : 640-0680



신입생 모집요강 - 남녀공학, 전국모집

모집학과	학급수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집정원
공동계열	8	53명	123명	176명
디지털전자과 전자통신과			특별전형	취업희망자, 자격증소지자

특색 사업 · 혜택

- 교육감지정 전자통신제어분야 특성화고 지정
-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운영
- 일·학습병행제 도제교육 거점 학교
- 매직(매력적인 직업교육)육성 사업 운영
- 취업특별반, 자격취득반, NCS반 운영
- 즐거운 실용생활영어(EET)
- 독서생활화 사자성어 및 인성 교육
- 동아리(기능, 태권도, 관현악, 축구, 드론/RC, 문학독서 등)

주요 취업처

공무원, 공기업(부산교통공단,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부사관, 한국통신(KT), 삼성전자(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주)한화, SK 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대기업, (주)DID, (주)일진디스플레이, 하나마이크론(주), (주)쿠쿠전자, (주)성우하이텍, (주)삼영이엔씨, (주)HME, (주)엠케이, (주)CMG테크윈, (주)대신기업



주님의 기도에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마태오 복음의 기도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저희에게 빛진 이들의 빛을 탕감해 주었듯이 저희 빛을 탕감해 주소서.”입니다.(마태 6:12) 이 말의 의미는 “매정한 종의 비유”(마태 18:23~35)와 연결할 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만 탈렌트를 빛진 사람의 빛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1탈렌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숙련공 하루 일당이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더라도 만 탈렌트면 대략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금에게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곧 천만 원가량 빛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매정한 종을 잡아들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푼어야 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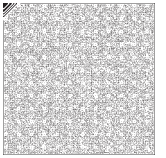
느냐?”라고 말하며 모든 빛을 다 갚으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용서 관련 기도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원죄로부터 이어진 모든 죄의 고리, 곧 만 탈렌트를 빛진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빛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우리이기에 우리도 아버지처럼 백 데나리온을 빛진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자비를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마태 18:35) 이렇게 보니 이 기도는 주님께 단순히 용서만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푼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교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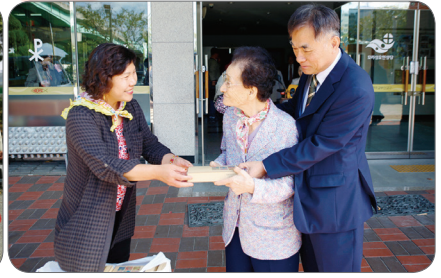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남목 10월 22일(일) 현대공업고등학교
주임 : 권경렬 신부, 회장 : 김종근 요셉



명지 10월 22일(일) 본당
주임 : 김상균 신부, 회장 : 서영옥 데레사



모라성요한 10월 22일(일) 본당 / 주임 : 강정웅 신부, 회장 : 정경자 율리안나



사직대건 10월 22일(일) 살티공소
주임 : 김정욱 신부, 회장 : 박찬수 F. 하비에르



자유대청 10월 22일(일) 배론성지
주임 : 강지원 신부, 회장 : 장식 라파엘



당리 10월 22일(일) 연풍성지, 청풍호
주임 : 최재현 신부, 회장 : 한창희 바르톨로메오



일평 10월 22일(일) 울산중하체육관
주임 : 이석희 신부, 회장 : 김동규 아우구스티노



삼산 10월 22일(일) / 주임 : 박성태 신부, 회장 : 김유현 스테파노



성지 10월 22일(일) 성지초등학교 / 주임 : 이기정 신부, 회장 : 이용전 마르티노

사직성당, 평화의 모후 Pr. 2,000차 주회



10월 13일(금)
주임 : 김원석 신부, 단장 : 손영미 베로니카

신선성당, 능하신 모후 Pr. 3,000차 주회



10월 26일(목)
주임 : 김상호 신부, 단장 : 윤영길 마태오

신학생 부모 피정



성소국(국장 : 김태형 신부)은 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일) 교구청 5층 강당에서 피정을 실시했다. 이날 피정은 '행복한 나

의 삶'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정철용 신부의 특강, 다큐멘터리 '사제' 상영, 학년별 부모 모임,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사를 주례한 손삼석 주교는 강론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대리구장과 함께 걷는 양업길 순례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11.10(금) 22:30
- 강사: 차광준 신부(이주노동자사목)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1.6(월) 19:30 전포성당
- 11.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버스안내카드 참조)
- 11.8(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성령목상회
- 제435차: 11.17(금) 19:00~19(일) 17:30
-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 회비: 10만원 / 미리 입금하셔야 정식 접수됩니다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1.9(목) 20:00~23:00, 20:00 미사
- 강사: 강우현 신부(수정마을성당)
- 1일치유대피정(저녁제공)
- 11.13(월) 14:00~22:00
- 강사: 이영숙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겨울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사 모집

- 모집분야: 꽃예술, 전문능력개발과 자격증, 문화·교양 / 지원자격: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본교 홈페이지(edu.cup.ac.kr) 참조
- 접수: 11.10(금)까지 방문 접수
- 교육: 주1~2회, 회당 2~3시간
- 2017학년도 겨울학기: 2018.1.8(월)부터 4~6주간
- 2018학년도 1학기: 2018.3.5(월)부터 10~15주간
- 문의: 510-0951~3, edu.cup.ac.kr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 대상: 전시, 공연, 문화기획 / 컴퓨터, 운전 가능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적사본 / 접수마감: 11.20(월) 17:00, 면접 개별통지
-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 용도: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 문의: 462-1870(행정실)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 내용: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자세히), 제대일 / 활동: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 접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 11.2(목)~12.8(금) 14:00~17:00
- 푸른군대 경당 / 강사 및 미사: 사제 및 수도자
- 신청비: 2만 5천원(교재 지참 2만원)

영상과 음악이 있는 묵주기도 100단

- 11.6(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 문의: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 간병경력 및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
-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개인간병사
- 문의: 933-7042 010-3572-7045

교 구

예신 월 모임(중장)

- 11.12(일) 13:30 · 신대학학
- 문의: 629-8760(성소국)

11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11.19(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본 당

옥동성당 사무직원 구함

- 자격: 컴퓨터(한글, 엑셀) 능숙자, 운전면허 소지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소속본당
-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052)261-6011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 의미를 후원회 미사

- 김해: 11.6(월) 11:00 임호성당
- 울산: 11.7(화) 11:00 아음성당
- 문의: 782-0765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11.7(화) 14:00 · 부곡동 사회사목국 4층 강당
- 주례: 인상현 신부 / 문의: 517-0613, 010-3660-2636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 부산: 11.8(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 울산: 11.13(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 주례: 김정안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군중후원회 미사

- 울산: 11.10(금) 10:00 옥동성당
- 주례: 박종석 신부(해병대사령부 해병중앙성당)
- 부산: 11.23(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 주례: 정한시 신부(특수전사령부 성례오성당)
- 문의: 751-3610, (052)274-3608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11.7(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전신자
- 주례: 배상복 신부 / 문의: 466-2290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11.10(금) 11:00 · 초장성당
-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꾸르실로 제403차(자매), 제404차(형제)

- 제403차(자매): 11.9(목)~12(일) / 마감: 11.2(목)
- 제404차(형제): 11.23(목)~26(일) / 마감: 11.16(목)
- 문의: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성서교육원 성서사십주간(1년 과정)

- 11.9(목)부터 매주 목요일 20:00~22:00
- 초량 성서교육원 3층
- 회비: 신·구약 5만원 (교재비 별도)
- 문의: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울산대리구평형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11.11(토) 09:00 / 문의: (052)201-6505
- 복산성당~병영순교성지성당
- 대상: 울산대리구 내 본당 신자들

부산선택주말 제85차

- 11.17(금)~19(일) · 마리아 피정 센터
- 대상: 40세 이하의 청년, 비신자 환영
- 참가비: 12만원 / 접수: 11.12(일)까지
- 문의: 010-5777-1081, cafe.daum.net/pusanchoice

부산ME 소개모임

- 11.20(월) 20:00 · 남천성당
- 352차 ME 주말: 11.10(금)~12(일)
-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2703-0155
-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음악교육원 기타반주 기초과정 개설

- 개강: 11.23(목) 14:00 (12주 과정)
- 지도: 황성민 교수 / 문의: 517-8241,2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469-7658
- 조건: 외국어 회화 가능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p>(주) 씨피여행사</p> <p>1. 1/2 이스라엘, 이태리 11일 455만원 2. 1/15 나가사키성지순례 4일 55만원 3. 4/15 스페인도보100순례 13일 325만원 4. 4/21 이스라엘 도보순례 12일 420만원</p> <p>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p>	<p>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p> <p>오두중성형외과</p> <p>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중(요한)</p> <p>805-0200</p> <p>카톡상담 ID: 오두중성형외과</p> <p>서면 주디스대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결혼예배, 예단, 전연염세, 한복대여</p> <p>협성주단·한복</p> <p>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p> <p>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p> <p>269~271호 (7호문 안쪽)</p> <p>646-1123</p> <p>010-3594-2137</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p> <p>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p> <p>정경우(시몬)</p> <p>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p> <p>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p> <p>744-8181 www.bmu.co.kr</p> <p>상담 010-5616-8600</p>	<p>서울성형외과</p> <p>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p> <p>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p> <p>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T.아퀴나스)</p> <p>http://seoulspl.co.kr</p> <p>818-3131</p> <p>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p>
<p>혼례청 교우 10% DC</p> <p>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p> <p>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p> <p>구경,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p> <p>서정자(마르타) 807-2025</p> <p>http://www.honre.com(총렬사 입구)</p>	<p>동국주단</p> <p>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p> <p>변관현(시몬) 최상희(안나)</p> <p>(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p> <p>643-7070, 010-9243-5776</p>	<p>(주)온누리투어</p> <p>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p> <p>매주 1회 부산 출발</p> <p>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p> <p>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p> <p>캄보디아 프놈펜(양코르왓 일정 포함)</p> <p>853-1333, 010-4843-4020</p>	<p>삼진커튼</p> <p>수입커튼, 암막커튼,</p> <p>우드브라이트, 콤포브라이트</p> <p>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p> <p>010-8546-2453</p> <p>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p>	<p>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p> <p>1/14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p> <p>11박 12일, 경비: 360만원</p> <p>1/22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p> <p>10박 12일, 경비: 535만원</p> <p>02-2281-9070 www.cttour.org</p>

